

박민경 유스티나(부산가톨릭미술인회), 《하느님의 마음》, Tapestry(직조), 80×45cm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 9, 9~10

화답송 시편 145(144), 1~2, 8~9, 10~11, 13ㄷ~14 (◎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이름을 찬미하나이다.

1.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2.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3.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

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4.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로마서 8, 9, 11~13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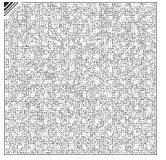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11, 25~30

영성체송 시편 34(33), 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나 형제들의 우애, 이웃의 도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보다 철부지들을 선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터무니없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보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그분의 힘을 믿게 된 바로 다음에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롭다거나 슬기롭다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쓰신 것은 그들

이 참으로 그러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말재간이 뛰어나고 순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죄와 사악함에 물들지 않아서 철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르 10, 15)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 당신의 삶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당신께서도 같이 열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마소의 목에 가로 얹는 구부정한 나무가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일을 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고통,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하느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녹여낼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은 그 짐을 피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 몫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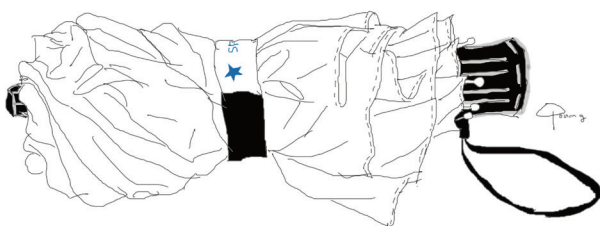


최 성 철
베드로 신부
성안성당 주임

지금까지

우산을 접듯

고개를 숙이면 굽실거린다고 할까 걱정이 되고 허리를 굽히면 비굴해 보일까 염려가 되고 무릎을 꿇으면 패배로 비춰질까 정말 조심했었지. 뜨거운 별에 양산을 펴다 설핏 들었네. 거침없이 온몸을 이단 삼단으로 접었다가도 망설임 없이 몸을 펴 비를 맞고 별을 막아서는 우산보다 도대체 네 몸이 더 나은 것은 또 뭐냐는.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10(월)~11(화)

최성철 신부(성안성당 주임)

7.12(수)~15(토)

엄종건 신부(문현성당 부주임)

..... **문자참여 #2340**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7.14(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저니투헤브

신부들의 수다 2017 여보세요 프로젝트

7.15(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안락 부주임), 김병희 신부(호계 보좌), 김수환 신부(청소년사목국 차장)

타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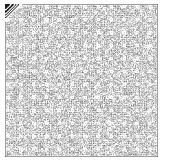
목소리 편지를 전해주세요!

참여 신청 : (051) 600-8825

선물 : 10만원 상품권(백화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 효 모 베드로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우리는 분명 Here,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왜냐면 “야 웨이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신이 되어 버린 돈을 쫓아가는 삶에만 치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도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TV의 광고나 신문 매체를 통해 다가오는 정보들을 외면하면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으로 우리는 이미 세뇌되어 온통 육적인 풍요로움과 웰빙으로 가득 차 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뒷전인 채, 용서하시는 주님이기에 다음에 찾으면 된다면 현실에 적응하기에 급급하다. 웰빙을 외치지만 알 수 없는 병명으로 환자는 더 많이 늘고 있다. 웰빙을 아무리 외치고 금수저라고 뽐내보아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 누가 거역할 수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제일 뒷전에 밀려나 있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중한 시간

을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홀로 빛어 만든 인간이기에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가? 부서지기 전에 빨리 제자리로 지금 여기로 되돌아와야 한다.

내일은 ‘지금 이 시간’ 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금 이 시간’ 이 없다면 내일도 미래도 없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어 놓고 계신다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뿐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 소설가 02-hyo@hanmail.net



철부지 어린이처럼

아침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가뭄에 목말라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장대 같은 비가 짹짹 쏟아지면 좋으려만 겨우 먼지만 날리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린다. 그 반가운 비가 하필이면 오늘 내리는 것이 애석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르신들이 1박 2일로 피정을 떠나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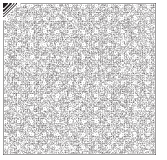
날씨가 어찌 되었든 어르신들이 피정을 통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출발 전에 드리는 미사에서부터 설레고 흥겨워하는 모습들이 마치 어린이들이 소풍을 떠나는 듯했다. 미사를 마치고 버스와 승합차에 올라타시는 모습에도 힘이 넘쳐 보인다.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을 가지는 마음은 나이라는 상관 없이 보나 보다.

피정지도 신부의 멋진 강의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잘 보이시지도 않는 눈망울을 굴리며 열심히 듣는 모습이 진지하기 그지없다. 강의를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다. 몸은 불편하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임하시는 모습에 부러움이 앞선다. 밤 시간에는 떼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폭 빠져들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진다. 다음 날 맑은 공기 가득한 아침을 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쳐져 있으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만들어져 간다. 어르신 모두가 삶의 지혜와 풍성한 지식들을 지니고 있건만 마치 철부지 어린이처럼 하느님 안에 머무르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다. 그런 모습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느끼게 한다.

■ 김명선 신부(전포성당 주임) johnkms@hanmail.net



마스크 맨



창수(53세, 가명) 씨는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퇴원을 하였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약물중독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뒤우치며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였지만, 창수 씨는 약물중독 후유증으로 고혈압, 당뇨, 말초신경질환, 불안정협심증, 색소성 망막 티스트로피¹⁾, 정신질환(환청, 환시 등)을 앓고 있고, 당뇨합병증으로 치아가 빠져 잇니 3개, 아랫니도 일부밖에 없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창수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예전에 옆집에 살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창수 씨의 사정을 알게 된 할머니는 자신이 살고 있는 방 한 칸을 내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40년이 훨씬 지난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창수 씨에게는 고급 아

파트와도 같았습니다.

집을 구한 창수 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받아 주는 곳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복합적 병력도 문제지만 빠진 치아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치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지역주민센터, 중독센터 등 여러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웃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수급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생계지원비와 병원치료비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치아 문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지 않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더욱이 치과 치료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오백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 망막 색소 상피에 변성이 와서 생기는 질환

결국 창수 씨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제대로 씹을 수도 없기에 믹서기에 음식을 갈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창수 씨가 마스크를 벗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치과 치료를 하지 못해 36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갑갑한 마스크를 벗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공동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본당이 공동체라는 말, 억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란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열두 사도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생활, 곧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근간으로 모든 생활과 신앙, 이념을 함께하는 조직을 공동체라 부르게 됩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이며, 같은 신앙 아래 공통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수도회 역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공동체를 모델로 삼으려 '공동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본당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 하고, 주변에 사는 신자 이웃들 모임을 소공동체라 합니다. 공동체 개념을 빌려 쓰는 것이지요. 비록 현실은 진짜 공동체와 분명한 거리가 있지만, 초대교회가 보여 준 공동

체의 모범을 살아가려는, 곧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쓰고 싶은 겁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강조되면서 그 반대로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은 그만큼 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 외치며 서로 나누고 함께하려는 꿈을 꾸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꿈이 단지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양산성당, 본당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올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은 양산성당(주임 : 김성한 신부, 회장 : 최성호 마티아)은 지난 7월 2일(일)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 중에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필사본, 묵주기도

100만단, 『양산성당 50년사』 책을 봉헌했다.

이밖에도 서대신(주임 : 신요안 신부, 회장 : 김동규 안드레아), 석포(주임 : 장훈철 신부, 회장 : 이병열 라우렌시오), 해운대성당(주

임 : 강종석 신부, 회장 : 허용훈 미카엘)에서도 본당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양산



서대신



석포



해운대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몽골 어린이 초청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주임 : 김정호 신부, 회장 : 이학열 베르나르도)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쉐넬초등학교(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운영) 어린이 4명을 초청했다. 몽골 어린이들은 지난 6월 24일

(토)~25일(일) 1박 2일 동안 홈스테이, 부산 지역 투어, 미사 봉헌 등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 8월에 창단한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까지 35개국의 선교단체에 약 2억 8천만 원을 후원했다.



교구 평협, 피정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지도 : 손삼석 주교, 회장 : 도용희 토마스아퀴나스)는 지난 7월 1일(토)~2일(일) 안동교구

우곡성지에서 피정을 실시했다. 상임위원(지구회장 포함) 26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손삼석 주교의 '한국 최초의 수덕자 농은 홍유한의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특강, 미사 봉헌, 안동 지역 문화 탐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좌동성당, 레지오마리아 대학 수료식

7월 2일(일) 주임 : 김성남 신부
회장 : 김복천 스테파노

부산성모병원,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주간행사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6월 28일(수)~29일(목) '제7회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관한 특강 및 공모전(UCC, 포스터, 4행시)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구는 지난 6월 29일(목), 1990년부터 약 27년간 교구 장의 버스를 운행한 김도영 바오로(성지성당)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호계성당, 심폐소생술 교육



7월 2일(일)
주임 : 배상복 신부, 회장 : 정경진 앵베르

교 구

7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7.23(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2019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7.29(토) 14:00~30(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회비 : 3만 5천원 / 마감 : 7.19(수)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문의 : 629-8760 ※ 2019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원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본 당

가야성당 7월 성령치유대피정

· 7.11(화) 12:30~17:0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
강사 : 박상대 신부(온천성당 주임),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 010-6679-5345

온천성당 은혜의 밤

· 7.20(목) 19:00~22:30(강의 및 미사, 안수)
주제 : 그리스도인의 행복 / 강사 : 최영배 신부
문의 : 552-0355, 010-8006-7756

염곡성당 공지영 작가와의 만남

· 7.21(금) 20:00 · 염곡성당 / 문의 : 314-6235
저서 : 높고 푸른 사다리, 수도원 기행 1,2 등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84.7.13. 김유재(그레고리오) 신부님
2000.7.14. 정환국(알로이시오) 신부님

부산교구 News & Focus 유튜브 방송
가톨릭라이프부산
www.catholicbusan.or.kr
▶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알림과 소식 - 가톨릭라이프부산)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을 후원회 미사

부산 : 7.10(월) 11:00 남천성당
문의 : 782-0765

빈민사목 후원미사

· 7.10(월) 10:00 · 문현성당
주례 : 윤희동 신부 / 문의 :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의류, 운동화, 수건, 치약, 샴푸, 린스, 가방 등
문의 :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7.10(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강사 : 정혜금(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문의 : 465-9508(정평위) / 미사와 강의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 7.10(월) 20:00 울산병영성교성지성당
부산 : 7.12(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 김경원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7.11(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 교정시설 방학으로 인해 7월 후원회 미사 없음 / 문의 : 441-7729

군중후원회 미사

울산 : 7.14(금) 10:00 옥동성당
주례 :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부산 : 7.27(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박종석 신부(해병사령부 해병중앙성당)
문의 : 751-3610, (052)274-3608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7.15(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부산 마리아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7.18(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 8월은 성모 승천 대축일 관계로 쉽니다

장재봉 신부와 함께 하는
2017년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
에는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일 시. 8월 4일(금)~12일(토)
장 소. 양산 정하상 바로 영성관
문 의. 629-8720~2(선교사목국)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 7.14(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 김규한 신부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회)
- 젊은이 성령기도회
· 7.10(월) 19:30 진포성당
· 7.12(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7.10(월) 11:00~16:00 (안수/점심 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 7.12(수) 11:00~16:00 / 점심 제공
버스 시간(카드시간표 참조)
- 교구 성령묵상회
제428차(젊은이) : 7.21(금) 11:00~23(일) 19:30
회비 : 10만원(교재비 없음)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7.13(목) 20:00~23:00
강사 : 박상훈 신부(무거성당 보좌)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7.11(화) 11:00 · 석포성당
대상 : 회장 및 지도조장 / 문의 : 466-2290

꾸르실로 참가 신청

제401차(자매) : 7.20(목)~23(일) / 마감 : 7.12(수)
제402차(형제) : 7.27(목)~30(일) / 마감 : 7.19(수)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부산성모병원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지하 1층 신라명과(전용면적 : 14평)
계약기간 : 협의 / 임대조건 : 보증금 2억, 월세 50만원(인할 최저가, 부가세 별도)
입찰자격 : ① 빵집임대 우선(단, 본원 내 편의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업 가능) ② 직접 경영, 전전임대 불가 / 문의 : 933-7033(총무팀)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 467-7897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 공원**
† 미사 : † 서틀버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오전 11시 3층 경당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대청동 (구)미문화원 맞은편
오민웅 (다미아노) 정신건강의학과
461-0303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전화 :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자동차 매매 상사(동국)
중고차, 신차, 매매, 말소, 수출, 폐차
상담. 010-3599-6420
현 중 삼(요셉) 전문이사
부산매매 1단지(관여 제14호)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혜(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 내과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약학과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거제주단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 환현(시몬) 최 상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교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7.10(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7.11(화) 10:00 · 이기대성당
· 7.12(수) 10:00 · 월평성당
· 7.21(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7.10(월) 10: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사랑의성모수녀회BPS 후원가족미사

· 7.10(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묵상 관상기도 피정과 미사

· 7.13(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성바로수도회 협력자 모임

· 7.13(목) 14:00 · 부산분원(오륜대)
문의 : 010-2059-6260(백기태 신부)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7.23(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7.19(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예수고난회 은인 1일 피정

· 7.10(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한 가지 부족했던 부자 청년(마르 10, 17~22)
강사 : 서현승 신부
문의 : (02)924-8627, 010-3579-7560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 미사

· 7.13(목) 14:00 · 삼위일체 수녀원
문의 : 463-7660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7.13(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7.26(수)~8.7(월) · 서유럽 성모성지순례 / 465만원
· 9.1(금)~14(목) · 독일 수도원 기행, 오스트리아 성모성지, 이태리 일주 순례 / 41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힌돌실버타운, 힌돌요양센터 입소자 모집

[힌돌실버타운] 독립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입소
신관(20평형) 구경하는 집 오픈
기준세대(17/25/34) 빠른입주 가능
문의 : 758-6231, 010-5574-6231
[힌돌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1~4등급)
입소 / 문의 : 751-0561

삼성산성지 7월 무료치유대피정

· 7.14(금) 18:00~16(일) 15:00
문의 : 010-7375-4600 / 09:00 서면 출발

제6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영성피정

· 8.4(금)~6(일) · 의왕 아론의 집
주제 :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 24, 29)
강사 :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회장
문의 : 010-5333-5583, 010-9727-2203
주최 : 미국 중남부 성령봉사회, 하찬사(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7.15(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7.16(일) 13:30	분원	010-2835-4858
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7.16(일) 14:00	수원 본원	010-8833-8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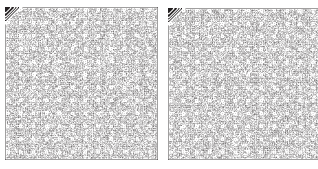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창의적, 윤리적 경영인력을 양성하는
경영학과
www.cup.ac.kr

부산성모병원 KNN건강 365 출연
7월 10일 [요일금 오해와 진실]
(부산성모병원 비뇨기와 이준택 과장)
7월 14일 [통풍 주의]
(부산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정임 과장)
문의 : 933-7861(비뇨기과) 933-7265(류마티스내과)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선학 복음 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일시. 7/17(월) 19:00
오베라는 남자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문관C&C)
내용 :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네! <강력추천>
18:00 후월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지역적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재활전문 영양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간호사 및 간병인 비율 부산최고 뇌졸중 / 중풍 / 통풍 / 척추손상 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인력로타리 병생병원 옆 T. 520-7700</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재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찬아(요한 급구) 743-3334 해운대 31번 중점 맞은편</p>
<p>뉴옥스마일 교정전문치과 박현정(마리아) ABO공인, 미국교정전문의원 비수술 주걱턱 / 인면비대칭 킴본 돌출입 / 어린이 주걱턱 702-6677</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풍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p>	<p>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육(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분 우대 감 중 관(토마스), 김태순(안젤라) 752-6516, 010-7597-9264</p>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